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김제준 이나시오 (1796-1839)



김대건(金大建) 신부의 아버지인 김제준은 충청도 면천(沔川) 땅 솔외에서 태어났다. 1814년에 순교한 할아버지 김진후(金震厚)와 큰아버지의 권면으로 입교한 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기도 용인(龍仁)으로 이사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 무렵, 나 베드로(모방) 신부를 찾아가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용인으로 돌아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1836년에는 15세가 된 아들 김대건을 모방 신부에게 맡겨 신학교가 있는 마카오로 유학 보냈다.

기해박해가 일어난 1839년, 김제준은 김순성(金順性) 일당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아들이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해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사범으로 간주 되어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 한때 배교하기도 하였으나, 형조로 이송된 뒤 배교를 취소하고, 그해 9월 26일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성화_김해동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연중 제31주일

입당송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말라 1,14L-2,2L.8-10

화답송 시편 131(130),1.2.3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떴던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2독서 1테살 2,7L-9.13

복음 환호송 마태 23,9.10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음 마태 23,1-12

영성체송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소리 주보 ▶

